

민주 광주시당, 경선 과정에서 ‘투표 오류’...신뢰도 하락

특정 통신사 차단에 ARS 미수신...뒤늦은 대응 혼선 2022년 이어 반복된 시스템 문제에 부실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또다시 ARS 투표 시스템 오류를 노출하면서 당내 경선 관리 부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같은 방식의 투표 차질이 빚어졌던 만큼, 반복된 시스템 혼선이 경선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광주지역 기초의원 후보 선출 관리당

원 ARS 경선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 이용 당원들에게 투표 전화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투표가 시작된 직후부터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시당은 초속 조치와 함께 투표 일정 일부를 조정했지만, 현장 혼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광주시당은 이번 오류로 투표 대상 관리당원이 바뀐 것은 아니며, 당초 계획대로 전날 3차례, 이날 2차례 등 모두 5차례 동일 관리당원에게 ARS 투표 전화를 발송했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표 지연과 일정 변경 여파로 일부 관리당원이 끝내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후보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당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리다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경선 관리 책임이 있는 시당이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번 차질은 개표와 집계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18일 오후 11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기초의원 후보자 발표 시점은 19일 오전 1시로 늦춰졌다. 투표 과정의 오류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전체 경선 일정까지 흔들 셈이다.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통신사의 인공지능 기반 스팸 차단 시스템이 여론조사 업체 발송 번호를 자동으로 스팸 처리하면서 ARS 투표 전화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시당이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간 시점은 투표 개시 후 3~4시간이 지난 오후 2~3시쯤이었다. 이후 스팸 등록 해제 등 후속 조치와 함께 투표 일정 일부를 조정했지만, 현장 혼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광주시당은 이번 오류로 투표 대상 관리당원이 바뀐 것은 아니며, 당초 계획대로 전날 3차례, 이날 2차례 등 모두 5차례 동일 관리당원에게 ARS 투표 전화를 발송했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표 지연과 일정 변경 여파로 일부 관리당원이 끝내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후보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당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리다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경선 관리 책임이 있는 시당이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경선이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데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시당의 관리·대응 체계가 구조적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상징성이 큰 상황에서

경선 초반부터 투표 오류가 드러난 점은 향후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경선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변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기초의원 후보는 “시당의 허술한 선거 관리로 관리당원이 지지 후보를 선택할 권리 행사 자체가 방해된 것 아니냐”며 “후보와 관리당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기려는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을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점검과 재발 방지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경선 초반부터 투표 오류가 드러난 점은 향후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경선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변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기초의원 후보는 “시당의 허술한 선거 관리로 관리당원이 지지 후보를 선택할 권리 행사 자체가 방해된 것 아니냐”며 “후보와 관리당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기려는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을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점검과 재발 방지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독려를 위해 광영매화마을 축제장에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록 “파크골프장 50곳 추가 조성”

권역별 54홀 ‘명품’ 골프장 조성 등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가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해 권역별 대규모 시설 확충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대를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2030년까지 광주·전남 전역에 파크골프장 50곳을 추가 조성하고, 권역별로 54홀 규모의 대형 파크골프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체육 시설을 넘어 숙박과 편의시설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파크골프는 비용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높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동호인



수만 5만여 명에 달하며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시설은 광주 10곳, 전남 44곳 수준에 머물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용 예약 경쟁이 일상화된 데다 현장에서는 이용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주권과 동부·서부·남부권 등 권역별로 대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특별시 전역 어디에서든 30분 내 접근 가능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현규 기자 gnews1@

주철현 “여객선 공영제 단계적 도입” 공약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 적립...새 운영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전남 여수갑·사진) 의원은 18일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단계적 도입을 약속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 상당수 여객선과 도선은 노후와 적자로 운항 중단 위기에 처하고, 선사가 철수하면 지자체가 급히 대체 선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 거문도 항로에서는 신규 선사가 쾌속선을 투입해 운항을 시작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운항 중단 위기를 겪었다.

지자체는 결손 보전과 대체 선박 용선 비용으로 매년 10억~15억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았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차원의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을 약 5년간 적립하고, 기금 조성 후에는 시군별로 가정 해상교통체단을 설립해 선박 건조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지자체 중심 운영체제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가 지정 항로 공영제 실시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통합특별시가 먼저 해상교통 안정 기금을 구축해 섬 주민의 이동권을 국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민형배 “광주·전남 BRT로 60분 생활권”

‘10-30-60 교통 대전환’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사진)이 18일 광주와 전남을 ‘60분 생활권’으로 묶는 ‘10-30-60 교통 대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민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에서 10분 내 대중교통 접근 △일상생활 담당하는 지자체 중심 운영체제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철도·고속도로 사업이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지적하며, 임기 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방안으로 광역 BRT(간선급행버스) 중심 전략을 제시했다.



단계별로 임기 내 광역 BRT 구축, 중기 광역철도 확충, 장기 철도·고속도로 인프라 확대 등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 BRT는 전용차로, 신호우선체계, 정류장 고속화, 환승 연계를 결합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광주송정역, 순천역, 목포역을 3대 복합환승 거점으로 구축해 철도·BRT·시내·농어촌버스를 한 번에 연결하는 통합 교통망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여수, 재방문·체류 늘리는 관광도시로”

명창환 혁신당 예비후보, 여수 관광 대전환 공약

명창환 조국혁신당 여수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여수 관광의 무게중심을 ‘방문객 수’에서 ‘재방문과 체류’로 옮기겠다고 약속하며 관광정책 전환을 공약했다. 섬과 해양, 문화예술, 지역 상권을 하나로 엮어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명 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숙박 중심 체류형 관광, 지역 상권과 연결되는 소비형 관광,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형 관광, 새로운 콘텐츠를 입힌 트렌드 관광을 여수 관광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섬 관광을 여수의 대표 콘텐츠로 키울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명 후보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섬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섬 트리엔날레를 정례화해 여수 섬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겠다고 밝혔다. 섬별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섬 특화 개발을 병행해 섬 자체가 관광 콘텐츠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명 후보는 “여수의 섬과 바다, 문화와 콘텐츠가 연결된 관광 구조를 만들어 관광객 만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관광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박병규 광산구청장 재선 도전 공식화

“산업·일자리 중심 도시 전환 이어갈 터”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민선 8기 성과를 토대로 산업·교통·일자리 중심의 도시 전환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박 예비후보는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9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큰 광산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산은 더 이상 광주의 외곽이 아니라 미래를 이끄는 중심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며 “민선 9기는 서남권 경제 중심 거점, 일자리 중심 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주요 성과로는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민·군공항 통합 이전 합의, 어등산 관광개발 추진, 광산고 신철 등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약으로는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 거점형 역세권 개발과 미래차·인공지능·디지털 산업을 연계한 첨단 산업벨트 구축, 청년 창업 및 혁신 생태계 지원 등을 내세웠다. 교통과 산업, 청년 정책을 축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 공공형 이전 부지 활용과 관련해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서는 속도 경쟁에 선을 그었다. 박 예비후보는 “군공항 이전 부지 활용은 성과가 나타나기

20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라며 “지금 당장 구제책 개발을 약속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활용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산구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23명이 참석해 지지 선언하며 세 걸음을 내딛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단 없는 광산의 지속 발전을 위해 박병규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며 “박병규와 함께 광산의 미래를 다시 열겠다”고 결의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임택 광주 동구청장 3선 도전 선언

“AI 기반 신산업·문화관광 도시 만들 것”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며 동구의 산업 구조 전환과 문화관광 활성화, 골목상권 중심의 사업 추진을 민선 9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임택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2시30분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임택 예비후보는 “골목상권 맞춤형 교육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 결재를 끝으로 공식적인 직무를 잠시 내려놓게 됐다”며 “민선 7·8기를 이끌어 도시재생, 주민 복지, 골목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성과로는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통한 인구 증가, 체류형 여수 여행도시 구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추진,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조성,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관련 신산업 육성, 동구 골목형 상점가 전 지역 지정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육성 등이 꼽힌다”며 “민선 9기의 핵심 과제는 동구의 산업 구조 전환과 문화관광 활성화, 골목상권 중심의 사업 추진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반 신산업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AI 밸리를 구축해 AI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논의와 연계한 ‘에너지·AI 밸리’ 조성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또 민선 7·8기 동안 구축한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야간 관광·예술 여행 등 체류형 문화관광을 확대하고, 동구의 정체성 정책인 ‘인문도시’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임택 예비후보는 “지난 8년 동안 골목상권과 문화, 인문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동구의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도 동구가 AI 기반 신산업과 골목경제, 문화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